

투데이 칼럼

훌륭한 스피치

각 종 스피치방법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스피치의 목적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이다. 논리적으로 말하기, 글쓰기, 태도와 표정, 음성, 이미지, 심리학 등을 학습하는 것이 스피치 학문이다. 스피치 학습은 크게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 30%, 실습 70%이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훌륭한 스피치 학습은 경험이 많은 지도자가 실습과 근거 있는 이론을 토대로 가르치는 것이다.

남이 가르치니까 나도 가르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스피치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수년 혹은 수십 년의 노력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Speech의 철자를 통해서 훌륭한 스피치의 기본을 알아보자.

첫째, Sincerely(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진실로)이다. 스피치는 마음에서 우러 나와야 한다.

진실을 담은 스피치는 큰 힘을 발휘하고 진실의 힘은 강하다. 연사가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스피치가 아니라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형식적인 말을 쏟아 낼 때, 그

스피치의 힘은 미약할 수밖에 없다. 훌륭한 스피치는 연사의 마음으로 부터 비롯된 진실된 것이어야 감동을 줄 수 있고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둘째, Passion(정열적인, 열정적인)이다. 열정은 전이된다. 연사가 뜨거운 열정으로 말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스피치 효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연사 자신이 먼저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청중들의 마음에 감동의 불꽃을 피울 수 있고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다.

셋째, Easy(쉬운 마음편한)이다. 스피치는 쉬워야 한다. 어려운 단어나 어구를 피하고 청중들이 편한

마음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용을 어렵게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쉽게 표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을지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 듣기에 거부하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의사소통이 안 된다.

넷째, Emotional(감정에 호소하는)이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에만 호소해서는 안 된다. 청중들이 감동을 일으키는 곳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다.

논리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감정적인 측면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스피치를 해야 한다. 현대는 감성대이고 표현의 시대이다. 감성이 있을 때 설득이 쉽게 되고 관심을 갖는다.

다섯째, Catchable(노래하듯이)이다. 노래는 부르기가 좋고 듣기에 좋다. 우리의 말에 리듬과 멜로디를 입힌 것이 바로 노래이다.

스피치를 할 때 맛있게 표현하면 그야말로 청중들에게는 수면제나 다름없다.

노래하듯이 리듬과 음성의 높낮이를 잘 살려서 표현해야 지루하지 않고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고 듣기도 좋다.

여섯째, Humorous(재미있는, 익살스러운)이다. 현대의 스피치는 딱딱하고 지루해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재미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머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평소 유머와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모아두고 최소 10가지는 외워서 상황, 장소(시간)에 맞는 실제 스피치에 잘 활용하면 호감 받는 스피치로 성공할 수 있다.



김양욱

한국 스피치 컨설팅 대표

독자제언

개인정보 유출 예방 위해 영수증 버리지 마세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신용카드 결제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이용하면 관매지는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받은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꾸러버리거나, 무심코 주머니에 넣어 방치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관리되지 않는 영수증의 개인정보가 영수증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범죄에 악용되거나 불상의 누군가의 손에 들어갈 수 있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금융당국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영수증에는 카드번호 일부와 유효기간을 타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표시를 하도록 제시하고 있는데, 가맹점 단말기 마다 구구각각이어서 여러 장의 카드영수증을 합치면 제대로 된 번호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카드영수증 뿐 아니라 현금 출납기에서 돈을 인출하고 받은 인출기록, 택배상자에 붙은 수취인 표시, 우편물 영수증 등도 조심해서 버려야 한다. 특

히, 택배 포지에 붙은 집 전화, 핸드폰 번호, 수취인 이름 등이 붙은 것은 반드시 수취인 표시를 제거한 후 버려야 한다.

최근 정부도 국민 중심 개인정보의 무단 사용 또는 유출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마련하여 관련 정보의 불법 유출, 침해방지 등 적극적인 보호 정책을 펼친다. 일련의 공공기관의 행정처리 과정의 인·허가 등 민원 신청서 기재 방식도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략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처럼 행정절차의 획기적인 변화는 철저한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대외 경쟁에 필요한 정책을 내실 있게 다지기 위해서다.

신용카드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연말 소득 정산과 관련된 각종 증빙서 발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비싼 일상 탓에 생활 주변에서 무심코 버려지는 쓰레기 더미와 방치된 자료에서 개인 신상 정보 무단 유출 등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주요만 남원경찰서 대경파출소장

독자제언

경찰민원, 경찰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세상은 인터넷을 통해 안 되는 것이 없다. 쇼핑, 은행 업무뿐만 아니라 이젠 원격진료까지 인터넷으로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이 생활 곳곳에 빠르게 자리하고 있는 요즘 우리 경찰도 경찰서를 방문해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2종의 경찰민원에 대해 경찰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찰민원포털'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올해 1월4일 부터는 처리 민원을 더욱 확대하여 47종의 경찰민원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용 방법은 온라인 포털 검색창에서 경찰민원 포털(http://minwon.polic.go.kr)을 검색하여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47종의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민원처리 제공 서비스 47종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증, 지문 등 사건등록신청 접수증, 사건접수증, 분실신고접수증, 전?의경 복무확인증명서 등 7종의 민원은 신청 즉시 발급 처리되며 분실신고, (성)범죄경력조회, 어린이통학버스신고, 손실보상신청,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운전

면허행정처분 이의신청 등 25종의 민원은 인터넷 신청 후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확인해 발급 처리한다. 단,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재발급, 긴급자동차지정신청, 총포화기 민원은 인터넷 신청 후 경찰서에 방문해 관련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운전면허관련 조회, 경찰관 채용 인터넷 원서 접수도 경찰민원포털에서 처리할 수 있다. 경찰서 교통민원실 업무 중 가장 많이 찾는 민원은 교통 단속된 경우 확인을 위한 경찰서 출두 안내장을 받고 놀라서 전화하는 경우와 교통 과태료 체납 시 변호관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경찰민원포털에서 범칙금 및 과태료 무인단속 여부, 단속사건 확인 후 납부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자신의 차량이 적발되면 이 사실을 문자메시지(SMS)로 받아볼 수 있는 제도도 있는데 이는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교통범칙금, 과태료 이종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이성일임실경찰서 청문검사계

사설

개성공단 중단 국론분열 없어야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너무 강수라는 얘기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때도 취하지 않은 조차일 만큼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인 점과 북측은 그렇다 치더라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지적들 때문에 일을 더 키웠고 지금까지 내내 저들에게 끌려온 것 또한 사실이 다.

지금은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된 엄중한 상황이다. 북한은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서 핵폭탄에 이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실전에 배치할 태세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에 끌려다녀야 한다. 말인가. 할수만 있다면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그동안 유엔안보리를 통한 다양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었지만 북한의 도발을 막는데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남한 내 사드(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반발해 우리 대

사들을 초치해 항의했고 중국은 비관세 장벽 등을 포함한 경제보복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등 오히려 북한 편에 서있는 상황이다. 지금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기 위해선 우리 측의 뒤통수 선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개성공단 중단이었다고 보면 된다. 냉엄한 국제 질서 속에 우리 측의 손실없이 어떻게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는단 말인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말이다. 그런데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한기롭게 평화통일 운운하며, 그것도 나라의 앞날을 책임져야 할 정치인들이 허언을 내뱉으며 국론분열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보통 딱한 게 아니다.

얕은 우리는 부분만 봐서도 안 되고 전체만 봐서도 안된다. 전체를 보되 부분을 헤아려야 하고 부분을 살펴되 전체를 감안해야 한다. 한쪽만 봐선 안된다.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반 조치는 충분하고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며 국론분열은 막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북한이 자초한 일이다. 더 이상 끌려다녀선 절대 안된다.

화재사고에 경각심 가져야 한다

지난 설 연휴 기간동안 전국적으로 화재 사고가 잦았다. 설 연휴 기간에 긴장이 풀려서 그랬을 거라는 짐작이다. 그래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경각심을 다시 챙겨서 화재 사고를 미연에 막자는 당부이다. 바로 나 자신과 내 가족이 불행에 당한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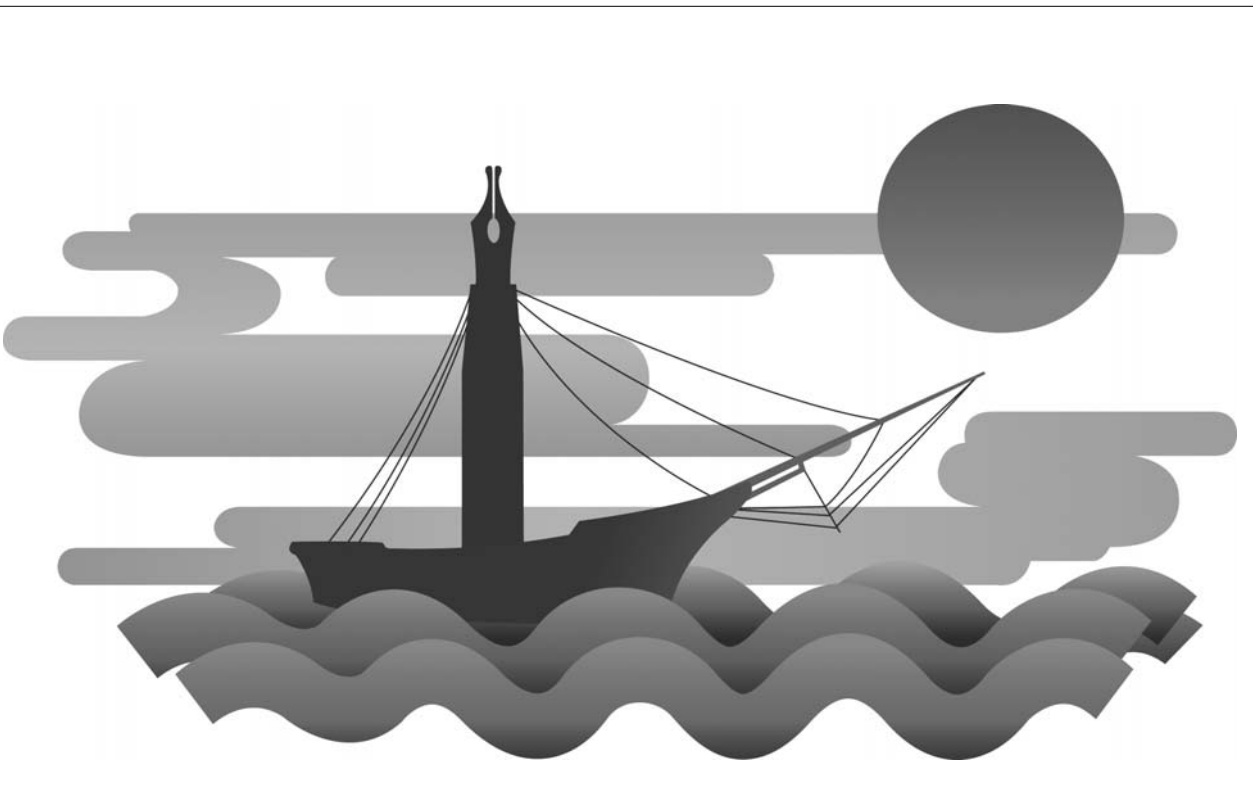
도내에도 이런저런 화재 사고가 났는데 가벌계 여걸 일이 아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화재가 남긴 찌더미를 바라본다면 불조심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화재 사고에는 분명히 교훈이 있다. 바로 인재라는 사실이다. 오늘 불이 나지 않았으니까 내일도 불이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바로 그런 방심이 화재 사고를 부른다.

날씨가 풀렸지만 아직은 겨울이라 화기를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데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화재가 나는 것은 사람들이 안전 사고에 둔감한 탓이 크기 때문이다. 저번에 했던 말을 다시 반복 하거나 지난 해 전북 지역에서

도 많은 화재 사고가 났다. 1982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거의 20%나 급증했다는 보고이다. 계산해 보면 하루 평균 54 건이나 된다. 인명 피해도 커서 사망 10명에 부상자는 80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재산 피해도 75억 원이 넘는다. 매년 보도가 안됐다 뿐이지 화재 사고는 끊임없이 있어왔던 것이다. 정말이지 화재를 당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현장을 바라본다면 불조심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소방 당국에 속히 신고하는 것도 실천해야 할 지혜이다.

화재 사고로부터 안전이 절실한 요즘이다. 그래서 예방 강조는 중요하다. 화재 사고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 다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집은 항상 불 단속을 잘 했었으니까 오늘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안 된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항상 구체적이어야 한다. 생각만으로는 화재 예방이 안 되는 때가 있다. 매년 두 눈으로 화기의 상태를 거듭 확인해야만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